

科

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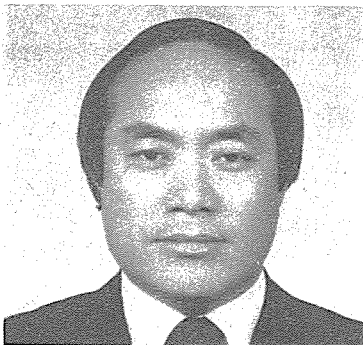
과

宗

教

羅 洞 榮

(瑞一專門大教授)



인간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만들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향상발전되어 행복하게 되기를 원 하였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宗教와 科学도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보아진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오늘날의 세계도처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종교들은 2천~3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종교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은 그 역사를 소급하여 볼 때 인류역사와 함께 하였든 종교(당시에는 무조건적 신앙이었다고 보아야 하겠다)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종교들은 教理 儀式 등의 차이점은 있을지라도 宗教本來의 목적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점이 없다고 할때, 지역, 환경, 대상, 특히 그시대의 사회적인 여건이 커다란 작용을 해 직접 간접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를 불안과 공포로부터 구제하고 보호하는데 있을 것이다. 인류가 보다 나은 생활을 가꾸고, 환경을 개선하여 내일의 安樂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위로부터 掩襲해오는 각가지 자연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간은 생명이 유한한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 것인가? 生·老·病·死로부터 초월하여 자유자재로울 수는 없는 것인가? 등 많은 생각을 갖는 자세에서 종교는 발전하고, 인류문화와 더불어 생활속에 뿌리를 내려왔다고 하겠다.

물론 종교는 사회의 尺度요, 規範이요, 길잡이요, 생활이었다. 오랜역사속에서 종교는 인류의 精神界를 점유지배하여 바르고 참되고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저변을 다져주고 받쳐주었다.

역사의 발전과 변천에 따라 종교도 함께하면서 懶怠와 恐怖와 葛藤에서 해방시키고, 勤勉과 安樂과 협조로 생활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사회의 人倫 道德을 확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하는데 공헌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종교가 인지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일이다. 종교

는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고, 진실된 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세계를 살찌우게 하고, 보람있게 살도록 항상 지켜주고 깨우쳐주었다.

그런데 인류의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문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종교자체에 대한 변혁은 없었지만 인간은 종교를 역이용, 인류의 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음도 부인 못할 사항이다.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문제를 神이든, 또는 어떠한 絶對者이든, 自身에게이든, 자기정립과 발전에유한 有無言의 約束(救援 懺悔 誓願)을 한번쯤은 했다고 가정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이라면 두번다시 반복되는 약속은 있을 수 없으며, 無宗教人이라 하더라도 시시각각으로 중심없이 변하는 마음의 자세는 지양되어야할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교는 현실에서 냉정한 자세로서 절대적지위를 갖지못했음이여 실한데, 이는 종교인들의 마음의 안정이 확립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종교문제 담당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自然法時代에 종교의 위치를 살펴보면 능히 짐작하리라 믿는다.

科學도 인류의 역사와함께 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유치하고 보잘것 없었다 치더라도 분명히 그것들은 인류의 생활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후세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점도많아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일까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수십만년전 또는 수백만년전의 인류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시대를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한다. 그러나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들은 그 시대의 유물들이다. 그 유물들은 인류가 생활을 영위하여가는데 다방면으로 사용했음을 알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식생활문제를 위해서 짐승을 사냥하고 맹수의 습격을 방어하고 음식물을 먹기쉽게 하는데 사용하였다.

인류역사에서 볼때 과학은 필연적인 것이었지 우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지가 발전함에 따라 과학은 단순한 생활수단이 아닌 강자가 군림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심지어는 개인의 영달, 부족의 영달, 크게는 국가의 번영이라는 미명아래 많

은 인명을 살상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생산하기에 이르러 인간을 詛呪와 恐怖에 시달리게 하였다. 물론 명분은 항상 普遍妥当性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裏面은 목적을 달리고 있음을 인류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인간에게는 생활이 다양화하고 복잡화되므로써 인간관계가 복잡해졌다. 복잡한 생활은 자연적 현상이 상대적 현상화 하면서 저버릴 수 없는 弱肉強食의 시대를 맞았든것이다. 약육강식은 수단과 방법의 차이만 있을뿐 원시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맨처음 만들어낸 도구는 오직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도구는 인지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도구로 전락했을 것이며, 결국 무한한 이상과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연구를 거듭하여 훌륭하게 만들어진 무기, 그 무기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의 정복을 위해 사용코자 하였지만 끝내는 자신까지도 그 무기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도 알아야하는데, 인간은 그 무기가 자기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만들어 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알게 될 것이며, 알게되면 상대인 누군가도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는 것이다.

현대사회를 과학시대라고 한다.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면서 과학의 혜택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웬일일까 과학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크면 클수록 불안도 커지는 反對給付現象을 나타내기 마련이니 참으로 모를일이 다. 그래서인지 현대의 지식층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며 종교신자도 幾何級數의 率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공포심에 대한 대상은 다를지라도 갖기는 마찬가지 인가보다. 과학이나 종교 모두가 인간의 생활을 향상 발전시키고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본래 사명을 다하지 못한데서 이런 현상

이 일어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종교가 인간의 내면성에 있어서 확고한 생활신조를 갖고 보람 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과학은 확고한 신념아래 생활을 운택하게 하고 불편없이 해주는 외면적 현실적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聖賢들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종교적 의식은 지극히 원시적이었을지라도 인류의 역사적측면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으며, 원시시대이나 현대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가장 중점적인면이 인간성회복 즉, 인간 중심 인간존중이 가장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종교(어떠한 종교나 마찬가지로)는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본래의 사명에서 이탈하여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데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종교는 맹목적일 수는 없다. 종교가 어떠한 대상을 신봉하던 그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종교를 만든 宗祖가 누구냐인 것이다. 아마도 인간이 만들었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종교의 역할은 인간중심에 기본을 두어 인간을 위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하여 선도적 입장에서 그 사명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聖賢의 말씀(宗教)중에는 인간자체를 죄인시하여 원죄자로 낙인을 찍어 놓고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나, 이와는 달리 인간이 우매하여 자신을 망각하고 있기때문에 모든 우를 범하므로 자신을 재발견하는 깨우침을 주는 것이다. 양자는 인간구제의 방법론의 차이일뿐 궁극의 목적인 인간 存榮에 바탕을 둔 것은 같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맹목적이라든지 무조건적일 수가 없다. 과학이 연구 분석 검토하여 과연 인간생활에 어떠한 이로움이 있느냐하는 보편타당한 확실성이 있을때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면, 종교는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에 대한 구원의 기대 때문에 추종받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전쟁없는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자가 없을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따라서 과학 시대의 공포로부터 해방과 인류의 共存과 共榮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

게 요구되는 이때, 종교는 본래의 사명 완수에 전력투구하여 과학시대에 있어서 과학이 어떠한 시행착오의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기 방어를 위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 사용하면서 그것만이 최상인양 역설적이론을 전개, 자기중심적으로 합리화 시키고 있다. 특히 종교에서는 두드러진 현상이며, 근래 우리나라에서 간혹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는 내심적사항이며 종교의 자유는 내심적 행위일진데, 어떠한 착각속에서 자기방어와 자기 합리화를 위하는 것은 타를 誹謗, 冒瀆, 叱咤하는 것만이 최상으로여기는 오도된 생각때문일 것이며 본래 면목을 상실했기때문이다. 과거를 돌아 볼 때 종교전쟁이 있었음을 볼수있고 현대에서도 종교전쟁형식을 띤 전쟁이있음을 본다. 종교의 숭고하고 위대한 가르침으로 현대사회에서 날로 팽배해 가고 있는 물질문명에 밀려 인간성이 상실되어가고 있음을 직시하여 성직자들은 인류가 자성을 확립하여 물질의 노예에서 탈피할수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사회는 생활하는 곳이다. 과학도 종교도 인간의 생활을 보다 운택하게 하고저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종교는 인간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현실의 천당이나 극락을 得하는 것과 來世의 영생이나 成佛을 하고자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되고 있지만 우선 현실에서 가장 가깝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과학전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을 찾아 이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기여 하여야할 것이다.

종교가 사회를 정화하고 인간에게 미래지향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다고 하는 것도, 과학시대를 형성한것도, 모두가 인간으로부터였지 어떤 被造物의 장난이 아님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자기발견으로 인간중심, 인간존중,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할때 상호조화를 이루어 모든 고통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